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

김성원(Sung-Wo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1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자모순 도서기호법 적용항목 |
| 2.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특징 | 4. 2 도서기호의 기능 |
| 3.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기호구성 및 사용법 | 4. 3 분류표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구분 |
| 3. 1 기본기호 | 5. 결론 |
| 3. 2 부차적 기호 | |
| 4.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자모순 도서기호법 | |

초 록

동일 분류항목 내에 분류되는 저작들을 개별화하여 배열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서기호는 크게 입수순기호, 저자기호, 그리고 연대순기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의 매우 빠른 학문 발전속도는 최신의 정보가 최상의 가치를 갖도록 만들었고,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또한 최신의 자료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가치기준과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최신의 자료를 오래된 것과 구분하여 모아줄 필요가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고안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널리 채용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특징과 기호구성을 살펴보고, 일부 자모순 도서기호를 적용토록 지시된 항목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였다.

Abstract

The Book number, which used to distinguish an individual book from every other book in the same class for easy arrangement and retrieval, can be classified into accession order book number, alphabetical book number, and chronological book number. Nowadays' incredible developing speed of knowledge change the standard of information value, the newest is the best, and user behavior, to seek the newest first. To deal with these changes, libraries need to classify the newest information into the same place. Hoping this system can be adopted in the Korean libraries, I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 which was designed to deal with library's need and examine the features of alphabetical arrangement of it.

1. 서론

특정 분류항목 내의 자료를 세분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로¹⁾ 정의되는 도서기호법은 동일한 분류항목 내에서 개개 자료에 대한 배열위치를 확정해주는 기호법이다. 즉 개개 도서관에서 채용한 분류표의 최세분 분류항목 내에 둘 이상의 자료가 분류될 때, 그들의 서가에서의 배열위치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검색과 배가를 돕는 기능을 갖는다.

현재까지 고안되고 사용되어온 도서기호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기호 매김의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도서관의 특정 분류항목 내에 자료가 입수된 순차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입수순 기호법, 자료의 출판년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연대순 기호법, 그리고 자료의 저자명을 대상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자모순 기호법의 세가지가 있다.

이들 세가지 종류의 도서기호법은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기호법을 사용하는 도서관의 요구와 그 기호법이 사용되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고안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적 문헌정보학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초기 입수순 도서기호법이 주로 사용된 이래로 여러 저자기

호법이 고안 사용되어 현재 도서기호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83년도에는 리재철 교수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연대순 도서기호법인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발표되기에 이른다.²⁾

이러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지목록에서 동일 분류 내의 저록배열을 선후학의 순서, 즉 연대순으로 배열하던 고래의 전통적 연대순 배열법의 전통을 이어 현재 자료의 구분 배열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대순 도서기호법인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현대의 엄청난 학문의 발전 속도로 야기된, 새로운 정보가 최상의 정보가 되는 오늘날의 경향에 맞추어 자료의 구분을 출현시기 즉 오래된 것과 최근 것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수용키 위해 고안되고 출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정보요구에 부응키 위해 고안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그 사용면에서 볼 때, 발표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다지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³⁾ 이는 기존의 도서관들이 자모순 도서기호법에 익숙한 상태이고 또한 이미 구성된 장서가 자모순 도서기호법으로 정리되어 있어 도서기호법의 변경을 쉽사리 결정하

1) Allen Kent,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Inc., Vol 45, p.19.

2) 리재철,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6, p.4.

3) 이양숙,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집 (1995.6) pp.34-42.

기 어려운 까닭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각 도서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이용자를 위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처해 나아가기 위하여는 각 도서관,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전문도서관들에서의 적극적인 채용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도서기호법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도서관 가운데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으로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본고는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발표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특징, 구성원리와 사용법을 소개하고 그 일부로 채용된 자모순 도서기호법의 성격을 규명해서 한국의 도서관들에서 널리 이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특징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이전의 연대순 도서기호법으로는 비스코(W. Biscoe),⁵⁾ 브라운(J. D. Brown),⁶⁾ 메릴(W.

Merrill),⁷⁾ 그리고 랑가나단(S. R. Ranganathan)⁸⁾ 등의 기호법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브라운과 랑가나단의 연대순 기호법은 각기 주제분류표(Subject Classification)와 콜론분류표(Colon Classification)의 일부로서, 즉 분류표의 일부로서 포함된 경우이고 비스코와 메릴의 기호법은 별도의 도서기호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들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기호구성면에서 살펴보면 비스코와 그에 기초한 랑가나단의⁹⁾ 연대기호법은 각기 세기 혹은 10년을 의미하는 영문 자모에 발행 서기년 가운데 영문 자모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만을 첨가토록 하는 혼합기호를 채택하고 있으며, 브라운의 기호법은 각기 다른 연대를 의미하는 영문 자모만의 결합으로 그리고 메릴의 기호법은 2000년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만의 순수기호를 채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발행년에 대하여는 영문 자모와 숫자와의 혼합기호법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초기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문자를 기호로 채택한 기호법의 경우에는 영문자와 그것이 나타내는 연도와의 아무

4) 위의 글, pp.45-48.

5) Walter Biscoe, "Chronological Arrangement on Shelves", Library Journal, V. 10(1985. 9-10.) pp. 246-247.

Comaromai, John P., Book Number: A Historical Study and Practical Guide to their Use, pp.45-47 에서 재인용.

6) James Duff Brown, Subject Classification, 2nd ed., 1904, pp.29-32., 이병수, "도서기호의 여러가지 방법 I," 국회도서관보, Vol.5 no.10(1968.11.12), pp.13-28., "도서기호의 여러가지 방법 II," 국회도서관보, Vol.6 no.1(1969.1), pp.19-28.에서 재인용.

7) Allen Kent, op. Cit., pp. 35-41.

8)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7., pp.501-510.

9) M. P. Satija,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Some Perspectives, pp.131-140.

런 논리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임의적으로 적당히 배당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세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장점으로는 첫째, 특정분류표의 일부로 고안된 것이 아닌 독립적 보편적 도서기호법으로 고안된 것이라는 즉 어떤 분류표 아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그 기호에 있어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순수기호를 채용하고 있어 단순성이 있다는 점, 셋째, 서기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시킨 발행년중 1900년대의 것은 끝 두자리로, 2000년대의 것은 끝 세자리로 기호를 구성하여 그 기호만으로도 쉽게 발행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성과 조기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기호구성 및 사용법

저작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도서기호를 매기는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기호구성 및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3.1 기본기호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발행년의 연대기호를 기본기호로 한다.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도서기호법 중 연대순 도서기호법으로 발행년을 대상으로 도서기호를 매기며, 이렇게 발행년의 연대기호로 동일항목 내의 자료를 개별화시키는 연대순 도서기호를 고안한 이유는 급속한 현대의 학문발달로 인한 정보요구의 변화를 수용키 위한 것이다.

3.1.1 연대기호

“발행년을 서기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1900년대의 것은 마지막 두자리 숫자를, 2000년대의 것은 마지막 세자리를 기호로 삼으며, 이 때 양서를 구별해 주기 위해 양서는 연대기호 뒤에 “a”를 덧붙인다.”¹⁰⁾

우선 1900년대의 경우 첫머리 “19”를 제외한 두자리를 기호로 삼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한국도서관에서 1910년을 기준으로 고서와 신서를 구분하며,¹¹⁾ 실제로 국내 도서관 소장자료 중 1900년 이전에 발행된 자료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기호를 짧게 매길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고서에도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도서관을 위하여 서기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시킨 발행년 전체를 기호로 삼는 별법을 마련하고 있

10) 리재철, 앞의 글, p.9.

11)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 창간호 (1975.12), pp.22-25., 리재철,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6, p.35. 에서 재인용

다. 2000년대의 자료를 위해 첫머리 “2”를 제외한 세자리 숫자를 기호로 삼도록 한 것은 비스코의 기호법이 2000년이후의 기호를 배정치 않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해결안을 위임하였으며,¹²⁾ 랑가나단의 연대기호가 2100년 이후부터는 영문자 두자리와 두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1000년을 포괄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인다.¹³⁾ 한편 양서의 경우 기호의 말미에 “a”를 첨부토록 한 것은 최세 분류항목 내에서 동서의 배열이 끝난 후 양서가 배열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사료된다.

3. 1. 2 추정발행년

“발행년의 표시가 없는 도서는 추정되는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되, 그 추정년이 두해 이상의 폭을 가진 것은 그 중 최근의 것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고 서기로 십년대까지만 추정되는 것은 입수년 이전의 십년대 것까지는 각 십년대의 “-9”를, 입수년이 속하는 십년대의 것은 그 입수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¹⁴⁾

3. 1. 3 발행년의 추정이 전혀 불가능한 도서

“신서로서 그 발행년의 확인이나 추정

이 전혀 안되고 막연한 것은 그의 입수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¹⁵⁾

발행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기호매김을 위해 설치된 상기 두 항목은 실무에서 봉착하게 될 발행년의 확정문제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랑가나단의 기호법보다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사용이 용이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추정발행년을 대상으로 기호를 매김에 있어 확인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기나 십년대까지의 문자기호만을 매기도록 한 비스코의 기호법에 비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년이나 입수년을 대상으로 기호를 매기도록 지시함으로써, 저작의 이용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비스코의 경우 198? 년에 발행된 저작은 “Y”를 연대기호로 배정받아 1981년에 발행된 저작 - 연대기호는 “Y1” -의 앞에 배열될 것이나,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 의하면 “89” 혹은 “입수년”을 배정받아 입수시점에서 최신의 자료와 함께 배열되므로 최신 자료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의 검색의 기회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이용을 진작시키게 될 것이다.

3. 1. 4 각이한 판의 연대기호

“동일저작의 판이 다른 것은, 개정판 뿐

12) J. P. Comaromi, Book Numbers: A Historical Study and Practical Guide to their Us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1981, pp.45-47.

13) 비스코, 랑가나단, 브라운, 리재철 연대순 도서기호표의 기호비교는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1986, pp. 225-232.를 참조하십시오.

14) 리재철,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6, p.10.

15) 리재철, 위의 글, p.12.

만 아니라 번역판, 주해판 등도 판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여, 그 특정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¹⁶⁾

동일 저작의 상이한 판들을 모아주느냐 아니면 각 판의 발행년에 따라 해당년의 다른 저작과 함께 배열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연대기호법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동일저자의 저작이 분산되는 문제점과 더불어 봉착하게 되는 주된 문제점의 하나이다. 랑가나단의 도서관기호법에서는 동일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모아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개정판 등 상이한 판들이 해당 발행년에 배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⁷⁾ 「새 연대순 도서관기호법」의 경우에는 원법으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도록 하여 해당 발행년에 발행된 자료와 함께 배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두가지의 별법을 제공하여 동일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모아주기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법을 채택하는 경우 랑가나단의 도서관기호법과는 반대로 동일저작의 상이한 판들이 발행년에 따라 나누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각이한 판을 초판 아래 모으느냐 아니면 각판의 발행년도별로 배열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자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새 연대순 도서관기호법」의 별법

1 을 추천하고자 하는 바, 그 이유는 개정판의 경우는 저작의 내용에 개정이 있는 즉 오류의 수정이나 정보의 추가 혹은 개정이 있고 초판과의 관련성보다는 별개 시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담은 새로운 저작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이 저본에 대한 해설이나 주해를 담은 주해서, 해설서와 저작의 언어만을 바꾸어준 번역서의 경우에는 내용상 발행 당시의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본과의 연관성이 크고 별도 저작으로서의 독립성이 부족하므로 각 저작의 발행년과 관계없이 저본이 되는 자료와 함께 모아주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원저작 없이 번역서만을 소장하는 도서관에서는 번역서를 별도의 저작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1. 5 발행년이 다른 다권본과 일반 도서적 성격을 띤 연속물

“두권 이상으로 이루어진 도서 및 일반 도서적 성격을 띤 연속물을 한 데 모을 경우에는 그 최초로 발행된 권책의 발행년을 기준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¹⁸⁾

발행년이 동일한 다권본은 동일한 연대기호 아래에서 다음에 언급될 ‘부차적 기호’ 중 권차기호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유취와 개별이 동시에 가능하나, 발행년이 다른 다권본과 독립적 성격이 강한 날권

16) 리제철, 위의 글, pp.12-14.

17) M. P. Satija, Op. Cit., pp.135-136.

18) 리제철, 앞의 글, p.15.

으로 구성되는 연속물의 경우에는 발행년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 저작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길 경우 동일한 총서에 속하는 저작이라 할 지라도 한 곳에 모을 수가 없다. 이 항목은 이러한 경우에 동일 총서나 연속물에 속하는 저작은 발행년이 다르더라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검색 및 정리의 효율면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유로 마련된 항목으로서, 여러 해에 거쳐 발행된 다권적 저작을 한 곳에 모아 배열할 수 있게 해준다. 랑가나단의 연대순 기호법에서도 비록 발행년이 다른 경우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다권적 저작은 모아주도록 지시하고 있는 바,¹⁹⁾ 이 경우 발행년이 다른 다권적 저작의 최근 저작은 동일한 발행년을 갖는 저작과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겠으나 다권적 저작은 발행년이 다르더라도 한 곳에 모이게 되며 이렇게 다권적 저작을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3. 2 부차적 기호

앞 절에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기본기호를 소개하고 해당 항목이 마련된 이유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새 연대

순 도서기호법」은 앞서 살핀 기본기호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연대기호를 갖는 자료들을 개별화 시켜주기 위한 입수순기호나 저자기호, 다권적 저작이나 독립적 성격이 강한 연속물을 위한 권차기호 그리고 동일한 복본도서의 표시를 위한 복본기호 등의 부차적 기호를 필요에 따라 더해주어야 한다.

3. 2. 1 입수순기호 혹은 저자기호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는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 동일한 연대기호를 갖는 도서가 여러 권일 경우, 이들을 개별화시키기 위한 기호로서 입수순 기호와 저자기호를 제시하고 있다.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원법으로 제시한 개별화 방법은 입수순 기호로서, 동일분류항목 내에서 동일연대기호를 갖는 두번째 자료부터 동서는 한글 기본음절표의²⁰⁾ 음절자를, 양서의 경우에는 영문자모를 연대기호에 덧붙여 개별토록 하여 자료의 완전개별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²¹⁾

한편 동일연대기호의 개별화를 위한 부차적 기호의 별법으로 제시된 저자기호는 두번째 도서부터 목록기술상의 저자표목 올림의 첫자를 - 동서는 첫음절, 양서는

19) M. P. Satija, Op. Cit., p.134.

20) 한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만을 결합시킨 음절철. 배열순서는 가가 그기 하하 호히.

21) 리재철, 앞의 글, pp.17-18.

동일 연대기호를 갖는 자료의 구체적 개별화 방법으로, 동서의 경우 두번째 도서부터 입수순에 따라 연대기호 뒤에 가가거거의 음절자를 덧붙이며 양서의 경우에는 두번째 도서부터 연대기호 뒤에 abc 등 영문자모를 덧붙여 개별화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서는 기본음절 한자로 140권의 개별화가, 양서는 자모 한자리로 26권, 두자리로 52권 그리고 세자리로 78권까지의 개별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도서관 장서 중 83년, 84년 발행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연대기호만으로 개별화가 끝난 경우가 61.16%, 이러한 입수순 기호의 부기를 통한 개별화가 필요했던 경우는 34.84% 였다함.

첫자모 - 연대기호에 덧붙여 개별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료가 완전히 개별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중복성을 인정하는 즉 완전 개별화가 필요치 않은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²²⁾

3. 2. 2 판기호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는 동일한 저작의 각이한 판들을 모두 초판과는 다른 개별 저작으로 인정하여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도록 원법을 마련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부차적 기호의 본 항목에서는 동일저작의 상이한 판을 - 개정판, 주해판, 해설판, 번역판 - 모아주고자 하는 경우, 즉 동일 저작의 각이한 판들을 개별저작으로 간주하여 특정판의 발행년도를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지 않고 초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는 별법을 채택한 경우에, 초판과 다른판을 개별화 시키는 방법으로 초판의 연대기호에 개별화 시키고자 하는 판의 서기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된 발행년을 다음줄에 부기하여 도서기호를 구성한다.²³⁾

이 항목은 각이한 판에 대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별법을 채택한 도서관을 위한 것으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원법대로 각이한 판을 개별저작으로 간주하고 연대기호를 매기는 경우에는 초

판과의 개별화를 위한 부차적 판기호 매김이 필요치 않음은 물론이다.

3. 2. 3 권차기호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는 발행년이 다른 다권본과 일반도서적 성격을 띤 연속물은 첫권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겨 모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권본 및 연속물은 동일한 연대기호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연대기호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시킨 권차기호를 부기하여 개별화 시키고, 권차기호가 연대표시로만 된 경우에는 서기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시킨 발행년을 권차기호로 매기며 복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큰 단위와 작은 단위의 것을 긴 이음표(—)로 연결하여 기재한다.²⁴⁾

3. 2. 4 복본기호

같은 도서의 복본은 두번째 이후 입수된 것에 대하여 “2”부터의 일련번호를 기호삼아 복본임을 나타내는 등호(=)를 앞세워 연대기호 다음 칸에 기재하며, 권차기호가 있는 경우 그 말미에 기재한다.²⁵⁾

4.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자모순 도서기호법

앞의 주장에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22) 리재철, 위의 글, p.16.

23) 리재철, 위의 글, p.17.

의 특징과 기호구성 및 사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발행년을 대상으로 도서기호를 구성하는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일부 분류항목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법을 채용한 이유와 그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일부주제에 채용하고 있는 자모순 도서기호법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모든 분류항목에 일률적으로 연대기호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중략) 일단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긴 다음에 연대기호를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다.”²⁴⁾ 라고 단지 한 특징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거나,

“일부주제에는 저자기호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저자기호법과 연대순 기호법을 혼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호법의 본질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대순 기호법이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²⁵⁾ 라고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분류항목에 따라 기호매김의 대상을 바꾸는 도서기호법의 일반적인 사용법을²⁶⁾ 고려에 넣지 않은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논리로 따진다면, 전기 등의 분류 항목에서 저자가 아닌 피전자의 성명을 대상으로 도서기호를 매기도록 한 자모순 도서기호법들도 도서기호 매김의 일관성이 없다고 논박되어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자모순 도서기호 적용 항목에 대한 구체적 究明이 없었던 바, 본고의 실제적인 중심 논제로 삼고자 한다.

4. 1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자모순 도서기호법 적용항목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연대기호를 매기기 앞서, 먼저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도록 지시한 항목은 다음의 8개 항이다.

- 전기와 인물평
- 족보, 세록, 가문의 인물지
- 조직체에 관한 도서
- 지역과 강산과 고적과 건조물
- 개인의 문학작품, 예술작품 및 철학자, 사상가의 논저
- 종교와 종파
- 경전과 고전

24) 리재철, 위의 글, pp.18-20.

25) 리재철, 위의 글, p.20.

26) 이창수, “한국도서기호의 발전과정 분석”, 계명연구논총 4(1986.2), pp.199-220.

27) 정희정, “도서기호법에 관한 소고: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187(1986.10), pp.58-64.

28) 일반적으로 저자를 기호매김의 대상으로 하는 도서기호법의 경우에는 분류항목에 따라 저자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대상을 기호매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 예로서 전기, 단체에 관한 저작, 정간물 그리고 전집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전기는 저자가 아닌 피전자의 성명을 기호매김의 대상으로 도서기호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1900년 이전에 나온 도서 및 그의 영인본, 신판, 번역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고 연대순 도서기호를 매기도록 지시된 상기 8개 항목을 그렇게 지시한 이유로 나누어 보면 두가지로서, 하나는 분류표 상에 제공된 분류항목의 세분이 완전할 수 없는 이유로 자모순 도서기호를 통해 주제구분을 한 단계 더해줄 필요성이 있는 주제분야이며, 다른 하나는 최신 정보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적용시키기 부적합한 고서와 그에 대한 영인본, 신판, 번역서의 경우이다. 위의 8개 항목중 1900년 이전에 나온 도서 및 그의 영인본을 위한 항목을 제외한 다른 7개 항목 모두가 전자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고서를 위한 자모순 도서기호 적용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주제세분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2 도서기호의 기능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법으로 먼저 도서기호를 매긴 후, 연대순 도서기호를 매기도록 한 이들 7개 항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도서기호의 기능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기호는

동일 분류항목 내의 여러자료를 단순히 개별화 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분류항목에서의 도서기호의 기능은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의 자료개별화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나 특정항목에서는 유취 즉 분류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²⁹⁾

이러한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의 개별화 기능과 분류의 연속 또는 보조적 분류의 역할을 한다는 도서기호의 기능에 대한 두가지 견해는 상반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론적인 견해와 그리고 좀더 심화된 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일반론적으로는 대부분의 분류항목에서 도서기호가 동일 분류항목 내의 자료를 개별화 시키는 기능만을 하지만 특정 분류항목에서는 도서기호가 보조적 분류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서기호가 보조적 분류기능을 갖는 분류항목의 특징은 자모순 배열 이외에는 별도의 논리적 배열방안을 찾을 수 없는 분류항목으로서, 그렇다고 분류항목 내의 세분항목을 모두 설치하기에는 해당 주제가 너무 많아 분류표에 무리가 따르고 안하기에는 구분성이 약한 항목인 것이다.

분류표에서 그 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던 논리적인 배열원리에 따라 항목을 마련한 대부분의 분류항목에서 도서기호는 단순히 동일 분류항목의 자료를 개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배가와 검색을 돕는다고 할 수 있으나, 분류대상이 되는 주

29) 박준식, 英美 著者記號表 研究,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박사학위논문, 1991., pp.4-12.

제가 주제자모순 외에는 개별화 시킬 여타의 마땅한 배열원리를 찾을 수 없고 분류표상에 대상주제를 개별항목으로 설치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많고 출현가능한 주제를 예상하기 어려운 분류항목에서는 도서기호가 분류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도서기호를 통해 주제를 세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자모순 도서기호를 채용하는 것이다.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먼저 매기도록 지시한 8개 항목 중 고서를 위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은 모두 분류표 자체에서 세분이 덜 되어 있는 이유로 도서기호법에서 대상주제 주제명의 자모순으로 세분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4. 3 분류표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구분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세분이 분류표 자체에서 지시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7개 항목을 보면 이들 항목이 분류표 자체에서도 자모순 도서기호로 주제세분토록 지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분류표인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와 듀이십진분류표(DDC)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 3. 1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에서의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구분

자모순 도서기호를 통한 주제구분법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분류표로는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를 들 수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 여러 곳에서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구분 지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중도서기호 매김(Double Cuttering)이 지시된 항목이 이에 해당하며 이중도서기호 매김은 주로 형식, 지리, 연대, 하위주제(Subtopic) 등의 구분이 필요한 주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⁰⁾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는 자체 도서기호법을 제공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도서기호를 매기는 대상어는 저작의 저자이며 저자기호를 열거식인 커터-샌본(Cutter-Sanborn) 표에 의하지 않고 자체의 간단한 분석조합식 표에 의해 저자기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에서 자체의 간단한 커터(Cutter)표로 저자기호를 매기도록 지시한 이유는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 자체가 매우 세분되어 있는 까닭으로 도서기호의 부분에서 세분이 필요치 않은 이유에서 연유한다고 할 것이나,³¹⁾ 그 부수적인 효과로 주제의 자모순 구분이 필요한 경우 주제를 대상으로 한 일차적 도서기호 매김을 통하여 주제구분이 가능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긴 후 연대

30) Chan, L. M., Immroth's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3rd ed., 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Inc., 1980, pp. 83-90.

31) Ibid., p.83.

순 도서기호를 매기도록 지시한 항목과 같이 자모순 도서기호를 통한 주제항목의 세분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주제명의 자모를 대상으로 도서기호를 부여한 후 이차적으로 저자를 대상으로 도서기호를 매기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매기는 도서기호는 분류번호의 연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³²⁾

4. 3. 2 듀이 십진분류표(DDC)에서의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구분

DDC에서 주제 자모순 구분문제를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의 문학류와는 달리 DDC의 문학류의 주제구분순(Citation Order)은 주로 “언어-문학형식”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822.33의 셰익스피어 항목과 같이 문학에서의 주요한 주제구분 패킷이 저자임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며,³³⁾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도서기호로 저자기호를 채용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언어-문학형식-저자”의 주제구분순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특정언어-특정문학형식 아래에서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의 영미문학 항목과 같이 저자별 항목을 배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DDC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류표로서 전세계가 지역적인 편향없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항목배정에 균형이 필요함

기인하기도 한다. 즉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DDC는 각 언어-문학형식별로 문학자의 항목을 망라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으며, 또 수용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출현하는 수많은 저자를 위한 항목을 최신성 있게 반영시키기 어려우므로 문학류의 주제구분의 중요한 패킷(facet)인 저자의 구분을 저자 자모순 도서기호법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DC 곳곳에서 자모순 배열을 지시한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 “체계적 배열을 대신한 자관의 확장방안으로서 커터표, 커터-센본표, 혹은 LC 저자기호표가 자관의 특정한 요구를 위해 쓰일 수 있다.”³⁴⁾ 라고 한 DDC 19판에 비해, 20판과 21판에서는 “자모순 배열이나 연대순 배열주(note)는 괄호로 묶지는 않았으나 선택안(option)이며, 단지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³⁵⁾ 라고 의미를 축소하였으나, 주제 세분방안으로서 자모순배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을 볼 수 있다.

4. 4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통한 주제세분이 필요한 기타 항목

분류표에서 주제구분 방안으로서 자모순 배열이 쓰일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론으로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현재 이러한 문제

32) Ibid., p.85.

33) 리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 연구,” 도서관학 1(1970), p. 3.

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주류는 문학류로서 주요 분류표의 문학주제 구분 패식이 저자이며, 저자의 구분방안으로는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표에서와 같이 분류항목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항목의 설치없이 자모순 저자기호를 채용한 도서기호에 주제구분을 위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제구분의 중요한 패식으로서 개인명이나 단체명이 적당한 구분요소가 되는 주제분야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하여 주제를 한 단계 더 세분한 후 연대순 도서기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 항목을 모은 것이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적용토록 지시한 7개 항목인 것이다. 그러나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지시된 이들 7개 항목만이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세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다른 항목에서도 이러한 도서기호를 이용한 주제세분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 지시되어있지 않은 분야에서도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적용시키기 앞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이용하여 주제세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는 DDC에서 자모순 배열을 지시한 항목이나³⁴⁾, 미국의회도서관 분류표에서 이중 도서기호 매김(Double Cuttering)을 지시한 항목 중

일부 항목도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적용할 경우, 자모순 도서기호로써 주제를 세분한 후 연대순 도서기호를 매길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1장에서는 도서기호법 가운데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고안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그 기호로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 2장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새로운 지식이 최상의 지식이 되는 새로운 학문 경향에 맞추어 신정보의 검색과 활용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독립적 보편적 도서기호법으로 어떤 분류표 아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기호에 있어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순수기호를 채용하고 있어 단순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서기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시킨 발행년 중 1900년대의 것은 끝 두자리로 2000년대의 것은 끝 세자리로 기호를 구성하여 그 기호만으로도 쉽게 발행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성과 조기성이 있다는 점 등의 기호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34) Dewey, M.,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9th edition. Albany: Forest Press, 1979., p. lxx.

35) Dewey, M.,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ition. Albany: Forest Press, 1997., p. lv.

36) 예를들어 DDC에서 자모순 배열을 지시한 항목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목(目)으로서 004(Data processing), 005(Computer programming), 006(Special computer methods)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자모순배열이 지시된 005.756 5 (Specific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s) 항목에는 Paradox, DB 2, Oracle, Informix, Sybase, Ingress, Unify 등 상용 RDBMS 들에 관한 저작이 분류되며 자모순 저자기호로 세분하지 않고 바로 연대순 도서기호를 적용시킨다면 하나의 RDBMS에 관한 저작들이 특정 분류항목 내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3장에서는 그 구성원리, 사용법과 각 항목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본 고에서 중심 논제로 다루고자 했던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의 자모순 도서기호 적용 항목의 성격에 관해 도서기호의 기능, 분류표에서의 고찰 등의 방법론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먼저 매긴 후 연대기호를 매기도록 지시된 8개 항목 중 기본적으로 연대순 도서기호의 목적에 부적합한 고서를 위한 항

목을 제외한 7개 항목 모두 분류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세분의 기능을 도서기호법에서 수용하기 위하여 지시된 항목으로 여타의 도서기호법에서도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을 달리하여 세분토록 지시할 필요가 있는 항목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같은 항목으로는 현재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서 지시된 항목 이외에도 분류표에서 자모순 배열을 지시한 항목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남석, 도서기호. 대구: 계명대학교, 1988.
- 김자후, “도서기호의 부차적 기호법에 관한 소고”, 문헌정보학보 5 (1993. 8), PP.281-300.
- 김치우, “자료조직의 효율성 고찰: 특히 도서기호법을 중심으로”, 부산여대논문집, 24(1987.8), pp.207-224.
- 리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 연구: 한글 구조상의 특색, 기입의 형식, 배열, 표기법 문제 등과 관련한 고찰”, 도서관학 1(1970), pp.1-57.
- 리재철,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 리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인문과학 24(1971.5), pp.221-245.
- 리재철, 한글순 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 박준식,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에 관한 분석적 고찰”, 도서관학 23(1992.11), pp.33-62.
- 박준식, 英美 著者記號表 研究.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박사논문, 1991.
- 박준식 김남석, “저자기호법의 발전과정 1. 2” 도서관 330(1994.4), pp. 3-21., 도서관 331(1994.6), pp. 3-22.
- 서울시도서관연구회편, “도서기호법에 관한 소고”, 도서관연구 6(1989. 12), pp.34-50.
- 이병수, “도서기호의 여러가지 방법 I”, 국회도서관보, Vol.5 No.10(1968.

11. 12), pp.13-28.
- 이병수, “도서기호의 여러가지 방법 II”, 국회도서관보, Vol.6 No.1 (1969. 1), pp.19-28.
- 이양숙,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1995.6), pp.23-70.
- 이창수, “한국도서기호의 발전과정 분석”, 계명연구논총 4(1986. 2), pp.199-220.
- 장일세,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자기호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2(1971), pp.1-45.
- 정옥경, “DDC 19판과 20판의 비교”, 인천전문대 논문집(인문사회, 체육계) 14(1990.8), pp.167-177.
- 정필모, “한국문헌기호법 연구:현행 열거식 저자기호법에 대한 대안,” 국회도서관보, Vol.9 No.5(1972.7), pp.5-62.
- 정희정, “도서기호법에 관한 소고: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187(1986.10), pp.58-64.
- Comaromi, J. P., Book Numbers: A Historical Study and Practical Guide to their Us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1981.
- Cutter, Charles A.,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 Swanson-Swift rev.,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1969.
- Dewey, M.,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ition, Albany: Forest Press, 1997.
- Lehnus, Donald J., Book Numbers: History, Principles, and Application, Chicago: ALA, 1980.
- Osborn, J.,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9th edition: A Study Manual,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1982.
- Ranganathan, S. R., Colon Classification, 7th ed., Bangalore: Sarada Rna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7.
- Ranganathan, S. R.,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7.
- Satiya, M. P.,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Some perspectives,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Pvt. Ltd., 1993.